

# 보관방법이 감나무와 고욤나무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

김영중, 정진아, 권수현, 이철희

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

## Effect of Preservation Methods on Biological Activities of Extracts from *Diospyros kaki* and *Diospyros lotus*

Young Jung Kim, Jin-A Jeong, Su-Hyun Kwon and Cheol Hee Lee

Dept. of Horticultural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 Cheongju, 361-763, Korea

### 연구목적

감나무의 잎과 열매는 한방에서 시자와 시엽으로 불리는데 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그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과 항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욤나무의 말린 열매는 한방에서 군천자라 불리는데, 소갈과 번열증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은 이들 감나무와 고욤나무의 열매와 잎을 보관방법을 달리하여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 재료 및 방법

감나무와 고욤나무의 잎과 열매를 각각 음건하거나 액체질소로 동결한 후 -70°C에서 냉동 보관하였고, 분쇄하여 80% 에탄올로 60°C에서 6시간 추출하였다. 총 폴리페놀함량은 Folin-Denis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표준곡선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0.15mM DPPH용액 0.8mL와 추출물 0.2mL를 혼합하고 30분 후에 517nm에서 흡광도 감소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Ferrous ion chelate 효과는 각각의 추출물에 2mM FeCl<sub>2</sub>과 5mM ferrozine를 첨가한 후 10분 뒤에 562nm에서 흡광도 감소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지질 자동산화에 대한 항산화 효과는 각각의 추출물( $0.125\text{mg} \cdot \text{ml}^{-1}$ ) 0.5ml에 2.51% linoleic acid 0.5mL, 0.05M phosphate buffer(pH 7.0) 1mL, 중류수 0.5mL를 첨가한 후 40°C의 암초에 방치하면서 이를 간격으로 50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과산화물 생성 억제율을 산출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이 tyrosin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기 위하여, L-DOPA를 기질로 반응시킨 후 47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yrosinase 활성 억제율을 산출하였다.

## 결과 및 고찰

감나무와 고욤나무의 미숙과 및 잎 추출물에서 평균수율은 냉동보관의 경우 6.21%였으며, 음건보관의 경우 24.05%였다.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냉동보관한 시료의 경우 7.43~10.97mg · g<sup>-1</sup>로 나타났고, 건조한 시료의 함량은 17.58~35.65 mg · g<sup>-1</sup>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미숙과보다 잎 부위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으며, 냉동보관한 시료의 평균 수분함량(74.39%)을 고려할 때 보관방법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냉동보관한 감과 고욤의 미숙과 부위에서 ascorbic acid와 같은 RC<sub>50</sub> 값(0.04mg · ml<sup>-1</sup>)을 보여 가장 활성이 높았으며, 그 밖의 추출물들은 RC<sub>50</sub>값이 0.13~1.72mg · ml<sup>-1</sup>으로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소거활성이 낮게 조사되었다. Ferrous ion chelate 효과는 건조보관한 고욤 미숙과에서 RC<sub>50</sub>값이 1.30mg · ml<sup>-1</sup>로 다른 추출물에 비하여 현저히 양호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linoleic acid에 대한 과산화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 감미숙과(97.54%)를 제외한 모든 추출물들이 0.05mg · ml<sup>-1</sup>의 농도에서 99% 이상 높은 억제활성을 보였다. 각각 추출물들의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 냉동보관한 고욤미숙과(억제율=68.43%)와 감 미숙과(억제율=51.48%)만이 활성을 보였는데, 두 추출물의 IC<sub>50</sub> 값은 고욤 미숙과가 1.66mg · ml<sup>-1</sup>이었고, 감 미숙과는 1.88mg · ml<sup>-1</sup>로 조사되었다.